

돈보인 ‘강철 외야’...순간의 선택이 흐름을 바꾼다

KIA, 외야 보살 16개...리그1위

최원준 5개, 오선우 4개, 이우성·김호령 2개 ‘집단수비력’ 막강
실점 막고 팀 분위기 업그레이드 ‘숨은 승리 요인’ 상승세 ‘한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야진 수비력이 최근 빛을 발하고 있다. 외야 보살 부문에서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팀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어서다.

18일 기준 KIA는 총 16개의 외야 보살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1위에 올라 있다.

현재 리그 공동 5위(36승 33패 1무)를 기록 중인 KIA에게 외야 보살은 팀 승리에 기여하는 ‘숨은 승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KIA 외야진의 보살 능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강력한 송구와 빠른 판단력이 뒷받침된 고도화된 수비의 결과물이다.

특집권 상황에서 주자의 진루를 저지하는 정확하고 강한 송구는 실점을 막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개인별로는 최원준이 우익수에서 3개, 중견수에서 2개 등 총 5개의 보살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오선우(4개), 이우성·김호령(각 2개), 나성범·박재현·고종욱(각 1개)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탤다. 고른 기여는 외야진의 또 다른 강점이다.

외야 보살은 단순한 아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상대 주자에게 주루에 대한 압박감

을 안기며 과감한 진루를 억제하고, 투수에게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 수비 한 장면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외야 보살의 진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17일 kt전에서는 팀이 4-0으로 앞선 2회초, 무사 2-3루 위기에서 중견수 앞 안타가 나왔지만, 중견수 김호령이 홈으로 쇄도한 2루 주자를 정확한 송구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이 호수비로 KIA는 초반 주도권을 쥔 채 흐름을 지켜냈고, 결국 승리로 연결했다.

이어 18일 경기에서도 외야 수비 집중력이 위기에서 빛났다. 4회초 2사 2-3루 위기에서 희생플라이성 타구가 나왔고, 우익수와 1루수가 빠른 연계로 2루 주자를 3루에서 태그 아웃시켰다. 외야에서 시작된 판단력과 정확한 송구가 만들어낸 값진 수비였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KIA는 흐름을 바꿨다. 5-3 역전승을 거뒀다.

연이은 경기에서 보살로 위기를 지운 KIA 외야진의 수비는, 단순한 수비 이상의 가치로 팀 분위기를 살렸다.

이처럼 외야수들의 보살은 숫자를 넘어, 팬들에게 짜릿한 장면을 선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KIA의 경기에서 최원준의 호수비로 포수 한준수가 홈에서 주자를 잡아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윤해진 1루 주루코치 겸 외야 수비코치는 “기존보다 더 빠르게 타구에 접근하는 동작을 강조했다”며 “송구 거리가 줄어들고, 달려오는 힘이 송구에 실려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구 시 중심 잡기가 쉽지 않지만, 반복 훈련으로 보완했고 선수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야 수비 전반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KIA는 외야 실책이 리그 두 번째로 많고, 수비 지표 RAA도 여전히 하위권이다. 적극적인 플러이의 결과일 수 있지만, 안정감 측면에선 개선이 필요하다.

윤 코치는 “숫자만으로 수비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순간적인 판단 미스나 심리

적 흔들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 반복 훈련을 통해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지금의 팍이 후반기에 더 나은 수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살 1위의 수비 에너지가, 올 여름 KIA의 반등 드라마를 완성하는 힘이 될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홍철 기자

제주 찍은 광주, 대전도 찍고 안양가자

오는 22일 홈대전전 2연승 도전

제주전 승리 자신감, 팀 분위기 ‘업’
3, 4, 5위와 승점 2점차...도약 호기



광주FC가 안양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18일 제주SK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4경기 연속 무승 고리를 끊어냈다. 반환점을 돈 광주는 19경기 7승 6무 6패(승점 27)를 기록하며 순위를 6위로 끌어올렸다.

제주와의 맞대결은 광주의 올 시즌 향방을 좌우할 매치업이었다. 광주와 제주는 경기 전 나란히 8, 9위에 자리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분위기상 자칫하면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시점에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성사됐고 광주가 웃었다.

특히 긍정적인 대목은 공수 양면의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다.

최후방에선 노희동 골키퍼가 돋보였다. 제주는 이강현이 퇴장당한 직후 수적 우위를 앞세



광주FC 정지훈이 지난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SK FC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후 팀 동료 아사니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워 소나기 슈팅을 퍼부었으나 노희동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격에선 정지훈이 번뜩였다. 프로 3년 차를 맞이한 측면 공격수 정지훈은 후반 1분 환상적인 돌파 후 깔끔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대전과의 경기는 광주의 경쟁력을 시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대전은 리그 19경기에서 9승 6무 4패(승점 33), 2위를 질주하고 있다. 강팀인 만큼

광주가 대전을 잡고 기세를 탄다면 선두권 추격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광주와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3위 김천상무, 4위 울산HD, 5위 포항스틸러스는 전부 승점 29점을 기록하고 있다.

승점 27점에 광주가 대전을 꺾고 승점 3점을 채면 3위 등극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는 홈에서 대전을 꺾고 흐름을 살려 후반기 선두권 도약에 박차를 가한 단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2연패 도전 양희영 “티오프가 기다려진다”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오늘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 2연패에 도전하는 양희영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희영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일 티오프가 정말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양희영은 “특히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더 기대된다. 팀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양희영은 34세의 나이에 7번째 출전한 메이저대회에서 처음 우승하는 감격을 누렸다.

양희영은 작년 우승의 감격을 다시 떠올렸



기자회견하고 있는 양희영

/AFP=연합뉴스

다. 그는 “(메이저대회 우승이) 정말 오래 걸렸기 때문에 더 값지고 특별하게 느껴졌다”면서 “작년 우승으로 꿈과 목표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남자 5인조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시청 선수단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양시청, 협회장배 볼링 종합 준우승

유승호, 개인전·5인조전 ‘2관왕’

광양시청 볼링팀이 제2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전국 최정상 실업팀의 입지를 굳혔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최근 전주파인트리볼링경기장에서 개최된 대회 남자일반부에서 금 2, 은 2, 동메달 3개를 획득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 출전한 유승호는 1천598점(평균 286.3점)으로 금메달, 박상혁은 1천539점(평균 256.5점)으로 동메달을 거머쥐

었다.

박상혁, 백승민, 유승호, 김동현, 가수형이 팀을 이룬 남자일반부 5인조에서는 합계 7천108점(평균 288.9점)으로 2위 인천교통공사(6천964점, 평균 221.1점)를 크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승호는 개인전과 5인조전에서 2관왕에 오르며 팀의 종합 준우승의 선봉에 섰다.

광양시청 볼링팀은 지난달에 열린 제27회 전국실업볼링대회 종합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남볼링의 위상을 드높였다.

/박희중 기자

2025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바다낚시어울림대회 성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2025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바다낚시어울림대회가 19일 고흥 나로도항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낚시 동호인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낚시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울림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낚시배를 타고 나로도 인근 해역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도 직접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다양한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돼 특별한 추억을

더했다.

대회 결과에서는 민어상에 정진완·김철수(83cm)조가 1위, 조병만·정원영(76cm)조가 2위, 김정만·김상준(70cm)조가 3위를 수상했고, 북바리상에 금동희·금동욱(35cm)조와 정병욱·장영철(35cm)조가 공동 1위, 이건웅·한상윤(34cm)조가 3위를 수상했다.

정진완 회장은 “스포츠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는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종목”이라며 “이번 어울림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